화학기업, 생물의약 실용화 "러시"

산자부, 인천에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건설 … 위탁생산시설 육성

정부가 추진중인 인천 송도 소재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가 2005년 완공돼 2006년부터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시설로 운영된다.

산업자원부는 3월24일 르네상스호텔 회의장에서 한국생물산업협회 조완규 회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화학·제약기업 및 바이오벤처 등 관계자들과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회의에는 CJ 김완국 상무, 이수화학 김묵 팀장, 동양제철화학 김철 소장, 삼성정밀화학 변태호 수석, 동부한농화학 정종구 전무, 유한양행 이병규 실장, 한미약품 이관순 상무, 종근당바이오 강태원 이사, 동아제약 장안수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1998년 공사가 시작된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는 현재 미국 CDI엔지니어링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상세설계를 진행중이며 2005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센터는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바이오 의약품이 선진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FDA)의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에 적합한 생물의약품의 위탁생산과 품질관리, 분석, 교육, 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사업이 종료되는 2005년까지 국비 666억원을 지원해 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완공 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3/25>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